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The Bridge That Connects Heaven and Earth

최낙정 / 해양수산부차관
 by Choi Lark-Jung

나는 건축사들을 좋아한다. 정확히 말하면 부러워한다. 예술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창조적인 사고와 치밀한 손길이 늘 경이롭다. 좋은 건축물을 보는 것은, 운 좋게도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보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로비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 하며 조형과 색감을 음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건축사가 건물을 아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건축물이나 정책 모두 스케치로부터 시작된다. 외국사례를 본뜬 것이든 떠오른 영감을 그려낸 것이든 작은 펜 끝으로 생각들이 모아지고 형상화된다. 그 다음은 보다 정치(精緻)하게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선분 하나하나에 수치가 부여되고 문짝도 그냥 문짝이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지게 된다. 정책 또한 법률안이나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문이나 목차가 부여되고 공식적인 문구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매 한가지다. 설계나 정책은 결정된 이후에도 시공과 집행과정에서 또다시 현장과 현실에 맞추어 첨삭되고 수정된다. 잘못된 조사자료, 생각지도 않은 돌발상황, 당초의 계획보다 더 멋진 대안 등 이런저런 연유로 건축이나 정책 모두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듯 건축과 정책의 실현과정이 일맥 상통하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느낀 나의 소회를 건축에 적용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건축물을 바라보며 즐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건축의 원칙과 정신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건축은 무엇보다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의 존재이유가 인간이듯이 건축의 존재이유도 인간이다. 인간을 떠나서는 건축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을 품에 안아야 비로소 건축은 건축다워진다. 그래서 계단 하나 거실 한 평에도 인간을 위한 배려가 묻어나야 한다. 인간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을 부속물처럼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년 전에 건축사 한 분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시된 광화문의 한 공기업 건물은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듯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는 듯했다. 사옥 정문 앞을 길거리와 연결시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민간기업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건축물은 그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 좋은 건축물이란 낮았이를 떠나 인간에게 친절하고 따뜻하며 겸허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면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졌으면 한다.

건축은 또한 항상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 속에 있다면 자연을 존중해야 하고, 시골벽적인 도심에 있다면 사람냄새 물씬 나는 거리의 문화를 살려내야 한다. 스위스를 여행하노라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레만호숫가의 별장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스위스의 건축물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못지 않게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멋진 건축물이 많이 있으면 좋으려면 자연과 조화로운 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더욱이 여유로운 강가에 어울리지 않는 요상한 모양의 러브호텔이나 시골에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들을 보노라면 아무리 돈도 좋고, 토지 효율도 좋지만 건축에 대한 기본철학마저 버린 것 같아 화가 절로 치밀기도 한다.

도심의 건축물 또한 다르지 않다. 건축물마다 색상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주위의 건물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네모난 상자처럼 지어졌다는 것이다. 등골디 등근 세상을 온통 네모나고 각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혼자 거만될 듯 비뚤하게 서있는 건물 또한 적지 않다. 예전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종로 거리에 우주선처럼 솟아있는 금속성 건물은 그야말로 독불장군을 연상케 한다. 그 거리가 간직한 문화와 삶을 고려하지 않는 비조화의 건물이 이름처럼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지는 의문이다. 도시를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뿐 아니다. 어지럽게 걸려있는 간판들은 심한 경우 건축물의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최근 마천루(摩天樓) 전시장으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상하이의 경우 3천여개를 헤아리는 고층건물 하나하나가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창의성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나가고 있다고 한다. 체제가 다른 우리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 모두 최소한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건축물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은 자연스런 멋스러움이 있고, 도심은 도심대로 사람이 모여 사는 흥겨운 장단이 있다. 이를 살려나갈 줄 아는 건축이 되었으면 한다.

건축은 또한 그 건축물이 상징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한다. 편의성과 예술성은 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가치이기때 건축물은 자연스레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담게 된다. 필자는 6년간의 영국생활과 해외 출장길에 짬뽀 유럽의 여러 유적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유럽의 역사는 건축물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내 몸을 감싸는 듯 하다. 특히 이태리 남부 나폴리만에 있는 폼페이 유적지를 바라보며 느낀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뾰족하게 솟은 첨탑이 인상적인 19세기 쾰른대성당과 비잔틴양식을 대표하는 6세기 소피아대성당은 같은 교회건물이면서도 감흥이 전혀 다르다. 이렇듯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아졌으면 한다.

시대정신과 더불어 건축물이 담고있는 상징적인 철학 또한 중요하다. 교회건물은 교회다워야 하고, 비즈니스건물은 상업성이 녹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교회건물같은 것이냐고 한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건물, 종교의 심오한 진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물이 교회다운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 일에는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압도할 듯한 거대한 강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 건물을 좋아한다. '교회는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하고,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축사의 철학이 섬세하게 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이 건축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사랑의 종교정신이 곳곳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을 다해야 할 관공서의 건물들은 너무 권위적인 모습 아닌가 싶다. 특히 서초동에 지어져 있는 법원과 검찰청 건물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의 모임장소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공정과 형평, 참여의 정신을 담아내기 보다는 권위만이 두드러진 듯 하다. 다른 행정관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관공서 건축이 섬김의 모습 그대로 국민들이 다가가기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려깊은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정의하라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건축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있고 하늘을 향해 솟아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이 땅의 바람과 의지를 하늘로 띄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해주는 메신저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건축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성의 표현이다.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오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다가가려는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바라기는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고 철학이 담긴 건축물, 인간의 창조성을 맘껏 뽐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성에 겸허해 할 줄 아는 좋은 건축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ㄷ